社 說

진정한 민주화 실현을 위한 '한표'

— 14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11월20일, 대통령선거일이 공고되어 본격적인 14대 대통령선거가 시작되었다. 대통령선거에 이르기까지 우리 정치계에서는 그나름으로 진통이 있었다. 그 실효성은 문제가 되고 있지만, 이른바 중립내각도 구성되었고, 대통령이 집권당의 당적을 포기하기도 했다. 또한 각정당에서 현역의원을 비롯한 당원들의 탈당, 당적변경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다. 본격적인 정계개편은 아니겠지만, 대권의 향방에 따라서 본격적인 정계개편이 이루어질 것임을 예고하는 사태이기도 한 것이다.

그러나 정치권의 이러한 움직임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국민은 별로 없다. 대통령의 중립외지가 어떤 것인가를 여실하게 보여주는 사건도 벌어졌고, 따라서 중립내각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하는 점도 밝혀진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일은 14대 대통령선거가 갖는 본질적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이른바 양김은 개혁을 외치지만 모두 보수세력임을 천명하고 있으며, 그들의 한계가 어디인가 하는 것은 이미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는 14대 대통령 선거의 주도도 역대의 대통령선거와 다름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른바 재벌당의 출현은 정점유착의 결과로 재벌이 어느 정도의 힘을 갖게 되었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특이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재벌당의 출현은 보수진영 내부의 진열에 균열이 생겼다는 사실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일 뿐, 국민들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고 주목할만한 변화도 아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다. 과거의 반독재 민주화운동을 할 때처럼, 국민을 위한다는 말로 국민이 대표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간 것이다. 과연 현재 민주화가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도 심각하게 고려하야 할 문제이다. 표면에 나타나는 몇가지 유화조치가 바로 민주화는 아니다. 언제든지 독재정치로 회귀할 바탕이 남아 있는 한, 진정한 민주화는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14대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진정한 민주화를 위한 선거라는 의미부여를 할 수 없다. 그리고 이제 민주화라는 개념에서 평등의 문제가 제외될 수는 없다.

예컨대 그 동안 일어난 노사분쟁을 통해 우리는 정치적 평등만이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평등에 대한 국민, 또는 대다수 계층의 열망이 어느 정도로 성숙했으며, 또한 절실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지금 우리 현실로서는 진보적 성향의 대통령후보가 당선되어야 할 당위성은 충분히 있고, 우리 정치풍도의 쇄신을 위해서도 진보적 성향의 대통령의 출현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것이 하나의 과제이고 당위일 뿐, 결코 실현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에 대한 무감각이 팽배해지고 있다. 정치적 무감각, 거기서 생기는 기권은 선거가 있을 때마다 문제가 되고 있다.

물론 기권은 한편으로는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또 한편으로는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급격한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수행되고 있다. 그러나 그 어느 경우에서든 최선의 선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차선의 선택이라도 바람직하다는 현실적 논리, 또는 현실적 필요를 거부하기에 충분한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다.

기권은 정치적 무책임이고 도덕적 죄악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국민합의 통한 실질적 관계 필요

— 한·러 교류에 부쳐

지난 한주간의 일간지면중 가장 큰 지면을 차지한것은 누가 뭐라해도 보리스 옐친 러시아 대통령의 방한이었다.

보리스 옐친 러시아 대통령은 2박3일 방한기간중 노태통령과의 정상회담, 그간 한러양국간의 최대 현안문제였던 KAL기 격추사건의 해결과 심바리였던 블랙박스를 한국측에 전달함으로서 문제를 일단락 짓는등 의 성과를 가져왔다.

이외에도 양국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이 채택되어야함을 골자로 하는 27개안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함으로써 이번 방한의 성과물을 남기기도 했다.

실로 구 소련의 고르바쵸프 대통령이 블라디보스토크 선언을 통해 더이상 비 아시아권 국가가 아닌 아시아태평양국가임을 선언한지 5년만에 우리에게 다가온 현실이었다.

이와함께 러시아의 대 한반도 정책도 과거의 친북적인 노선에서 탈피하여 앞으로 북한과의 화합을 통해 핵개발 계획을 중단하도록 정치적 압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 천명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실들은 앞서 있어왔던 역사만을 놓고 바라보았을때 엄청난 변화 였으며 충격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충격은 구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 정책과 연방의 해체 과정을 통하여 예견된 사실이었다. 그러나 그 수위나 과고가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우리에게 다가왔음을 누구도 부정할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좀더 냉철한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았을때 한국과 러시아와의 관계에서는 그 수교과정에서도 그러했고 이번 방한에 있어서도 끊임없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러시아에 대한 차관제공의 문제는 그선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세계 어느국가를 막론하고 인류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국가간의 화해와 국가간의 협력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국가간 협력이 인류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다기 보다는 특정 이익집단의 요구에 의해 선행되어 진다면 그것은 이미 그 필요성을 상실하게 되는것이다.

우리에게 불어닥쳤던 구소련과의 관계개선과 이번 옐친대통령의 방한 역시 이러한 배락에서 불배 평화와 공동번영 그리고 국민적인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또한 상호 대등한 관계속에서 한쪽에서 서두르거나 한쪽으로 기울어짐 없는 외교관계가 되어야 할 것이다.

6공화국의 최대 치적으로 인정받는 북방정책 그러나 그 뒤의 숨한 구설수를 생각한다면 앞으로의 북방정책은 앞에서 밝힌 국제관계의 철저한 원칙하에 있어야 하며 이에 기반한 국민의 믿음과 성원속에 올바로 자리매김할수 있는 성과물을 내놔야 할것이다.

'알짜'들이 만든 파벌이기주의

— 군의 '알자회' 사건 파문을 보며

사론

군수사령부 잠바 불법유출사건, 육군 전방지대 하사관의 2역원이나 되는 휴가비 착복사건, 알자회 파동등 군내부 일련의 좋지못한 사건들은 파벌과 비리, 자신과 조직의 사리사욕 채우기가 극에 달했음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군이 우리 국민들에게 그리 좋은 인상을 주고 있지도 못한 상황에서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접하게 되는 우리 국민들은 군에 대한 다소간의 믿음과 신뢰마저 저버리게 되지나 않을까 우려가 된다.

지난 10월11일 육사 38기(소령급)가 입관 10주년 행사로 육사에서 동기회를 갖은 자리에서 인사조처에 피해의식을 가져왔던 한 소령의 '고자질'로 군 내부에 특정집단주의로 인한 사조직이 자신들의 개인적 '출세'를 위해 알자회라는 이름으로 이어져 왔다는 '공공연한 비밀'이 드러났다.

지난 80년 알자회의 실체를 이미 파악했던 기무사와 육군본부 인사 참모부 등이 당시 크게 문제 삼지 않은것 자체가 문제이나 최근 진급, 보직등에서 경쟁의식을 가진 다른 동기들이 '고자질'했다는 데서 육사교육과 군 조직관리에 큰나른 문제가 아닐수 없다. 기무사와 육군본부인사 참모부에서는 86년 당시 "특정한 이익집단이 아닌 단순친목모임의 성격이 강하였고 조직의 회최이나 형태가 그리 문제가 될만하지 않았다"고 변명아닌 변명으로 '발뺌'을 했다.

그러나 특정이익 집단에 대한 문제의 발단은 지난 4월경 38기 출신의 한 소령이 요직인 수도방위 사령부 30사단 작전과장자리를 놓고 "알자회 멤버가 그자리에 가야겠으니 포기하라"고 압력을 넣었다고 폭로했다고 한다. 특정 이익집단에 대한 반격으로 38기 동기회는 '파거 12, 12 사태와 5·17사건을 주도한 '하나회'의 후신격으로 특정지역 출신 12명이 '명예와 긍정을 생명으로 여겨 지내면서 속마음을 터놓고 얘기 나눌수 있는 친구가 없다'면서 '서로 친구를 제대로 알고 어려운 일이 있을때 도우며 살자'고 암속한데서 만들어 졌다.

알자회라는 명칭은 '서로 알고 나 지내자'는 뜻에서 정해졌다. 그후 각 동기별로 17기 선배들이 만들어 주었으며 군 입관후 주요 보직을 회원들끼리 서로 추천했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알자회가 '알짜회'로 불리우기도 했다는 것이다.

군내부 사조직·지역주의로 불신증폭

자기반성·정풍운동 통한 민주화 시급

그런중에 군 수사기관에 노출되어 김진영 육군참모총장이 지난 2월1일자 지휘서신을 통해 군내 사조직 해체 지시를 내렸는데도 젊은 장교들의 사조직인 알짜회가 그대로 활동해온 사실은 군 조직의 생명인 상명하복의 지휘체계를 깡그리 무시한 처사이다.

여기서 육사에 대해서 잠시 살펴봤은 이번사건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듯 싶다.

정부수립직후인 1946년 당시 장교 양성기관으로 출발했다가 한국전쟁중인 1951년 진해에서 4년제 정규사관학교로 다시 문을 연 육사는 지금까지 2만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이 기관졸업생을 단 인원은 약천여명이 된다. 우리 국민들에게 있어 육사의 의미는 이같은 산술적 통계보다는 5·16군사 쿠데타를 계기로 군부가 전면에 나선 이후 30여년간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현대통령에 이르는 3명의 국가원수를 거의 '세습하듯 독점배출'했다는데 있다. 70년대와 80년대를 풍미했던 말중에 '자식을 대통령 시키려면 육사에 보내야 한다'는 말이 의미가 있는것은 이런 뜻에서이다. 특히 5공 시절엔 육사출신이 사회 각계에서 지배력을 행사하여 '박사위에 육사, 육사위에 보안사, 보안사위엔 여사(당시 영부인)'라는 유행어가 풍미하기도 했다.

육사출신 장교들의 생도시절 교육목표는 3개 신조와 5개 도덕률이다. '국가, 민족에 생명을 바친다', '명예와 신의속에 산다', '안락한 불의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 택한다'는 3개 신조와 진실, 공명정대, 언행일치, 부단이익배제, 책임행동의 5개 도덕률이 그것이다. 여기에 명예제도가 있어 교칙과 생도신조 등을 위반했을때 양심에 따라 신고해야하고 이를 숨겼을 때 동기가 고발하는 것도 명예에 속한다.

각 중대마다 명예위원은 4년생도가 투표에 의해 선출되며 이들로 전교명예위원회를 구성한다.

거지같이나 시험에서의 부정행위, 외출·외박시 술, 담배, 여성에 대한 성적접촉 등 3개 금지사항을 위반했을 때 생도들은 이 명예위원회에서 자신이 고해성사한다. 만약 이러지 않았을때는 동료가 고발하기도 한다.

천주교에서는 비록 옳지 못한 일을 하였을지라도 양심에 따라 고해성사를 한 경우 용서와 사면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육사의 경우 그렇지 아니하다. 육사생도들의 명예신고는 최고 퇴교까지를 포함한 처벌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생도들에게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퇴교 결정이 양심선언이나 동료의 고발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매우 엄격한 교육을 받은 육사출신의 장교들이 나름대로의 강한 특권의식을 갖는 것은 당연지사일수도 있겠으나 그러한 교육환경속에서 배운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입관후 군생활을 한다.

보언론지에서는 한 비알자회 장교가 '일부육사출신 장교들의 몰지각한 행동으로 인해 군전체가 국민으로부터 오해와 질타를 받는다는 것을 참을 수가 없으며 군내부에서도 지역감정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 실의, 술타령까지하고 있는 장교도 있다'는 '한탄아닌 한탄'을 더부기도 했다.

육군수뇌부에서는 최초로 관련장교들에 대한 조직해임을 한데 이어 나머지를 관리대상으로 분류, 잠차 주요보직에 절대 임명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최종확정 했으나 젊은 비알자회장교들이 이번 사건에 대해 나름의 입장을 표명하면서 수뇌부의 수습방안에 공식적으로 강력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이것은 영남세가 지배하던 군부에 대한 반발심리, 군 내부의 조급차우에 대한 불평들이 이번 기회에 일시에 터져 나와 군내부의 심각한 문제점이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이로 인해 군내부의 불평불만이 외부로 새어나가고 언론에 제보가 되기도 했던 것이다.

앞으로 남은 것은 육군수뇌부가 사태의 본질을 냉철하게 인식하고 육군장교층과의 지시를 완전히 무시한 알자회 관련장교들의 활동을 규제하고 나머지 비알자회 장교들이 갖고 있는 수뇌부에 대한 의구심을 말끔히 해소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는 알자회 및 그밖의 사조직을 철저히 해체시켜야 할 것이다. 사실 군부도 하나의 조직사회이고 그 조직사회내에서 구성원들간에 인간적인 친목관계들도 있을 수 있다. 또한 동기회같은 순수친목모임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군조직내의 사조직은 군의 파벌화와 나아가 상명하복이라는 군의 생명에 위협을 주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회원 및 비호세력을 색출하여 기필코 엄중문책을 해야 할 것이다. 옳지 못한 지역이기주의에 기반, 집단적 종파행동을 일반인이 아닌 한 나라의 군을 지휘하는 장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은 매우 크나큰 반조직적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한 모든 국민이 납득할만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이다.

마지막으로 군내부에 정풍운동과 군의 민주화를 위한 근본대책을 시급히 마련, 시행해야 한다.

특히 정풍운동은 군을 용바로 유지, 강화하겠다는 양심적인 군인들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렴해야 하고, 4천만 국민들로부터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군은 민족집단의 국가적 존속을 책임지는 골조직이다. 그렇기 때문에 군은 민족전체의 이익을 위해 진정으로 노력봉사를 해야 한다. 우리의 정치사를 이야기할 때 '군부사'를 따로 떼어서 논할 수가 없는 현실에서 군부내 특수이익을 위한 사조직 척결과 군의 민주화를 위해 우리 국민과 군의 공동의 노력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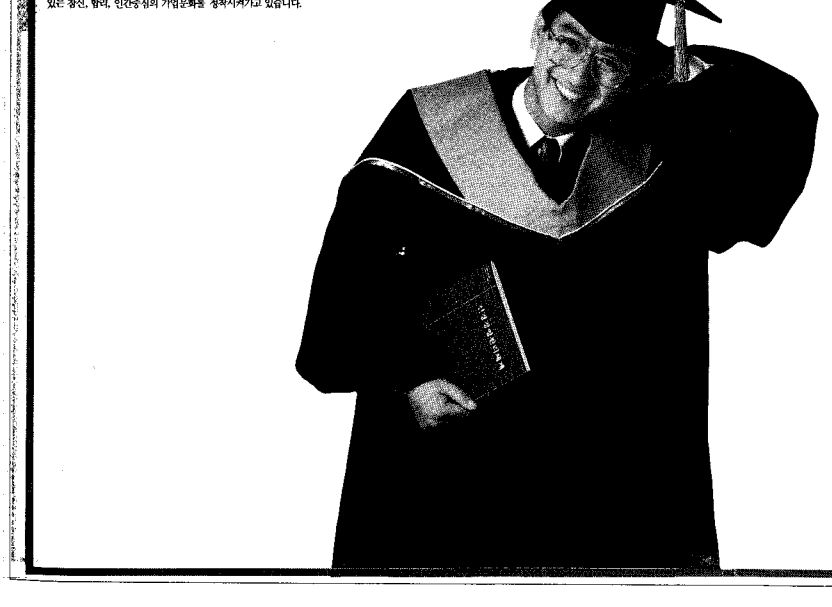
〈특집부〉

(고 황 만 평)

'웬 난리'

좋은 기업, 그곳엔 좋은 문화가 있습니다(SKMS)

SKMS(Sunkyong Management System, 선경경영관리체계)는 학문적, 이론적인 경영기법이 아니라 실제 기업경영을 통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을 골라 회장에서부터 신입사원에 이르기까지 전사경영인의 합의에 의해 만들어진 경영관리체계입니다.
이를 통해 선경의 기업구성원들은 자발적이고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창신, 합리, 인간중심의 기업문화를 정착시켜가고 있습니다.



"화공학을 전공한 신입사원 이태근씨가 요즈음 친구들에게 경영학박사로 통하는 이유"

대학에서 경영이라는 단어조차 생소했던 화공학도 이태근씨 졸업후 유공 고분자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입사할때까지만 해도 자신은 경영과 무관한 사람으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신입사원 연수도중 읽은 책자속에 담겨진 SKMS를 접하게 되면서 경영이라는 것이 이론속에 파묻혀있는 어려운 학문이 아니라 현실속에 생생하게 살아 있는 이야기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계속되는 조별토의와 질의응답 그리고 회장과의 대화를 통해 SKMS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해하면서 그러한 생각에 더욱 확신을 갖게되었고 전공분야와 상관없이 자신을 비롯한 신입사원 모두를 초급경영자로 인정한다는 말에 조금은 놀라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경험에 흥미를 느낀 그가 요즈음에는 대화중에 경영에 대한 나름의 논리를 곧잘 펴곤해서 주위친구들에게 경영학박사로 통하기까지 합니다.

SUNKYONG
鮮京그룹